

Issue Brief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74]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 2023. 10. 31. | 발행인 : 문순덕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의 현황과 지원방안

선민정 연구위원

목 차

1. 들어가며
2. 경력단절여성의 현황
3.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욕구
4. 시사점 및 지원방안



1. 들어가며

-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2022년 기준 52.9%로 남성 71.5%보다 18.6%p 더 낮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 고용률이 64.4%이나 남성 고용률은 75.5%로 11.1%p 더 낮아 타 지역보다는 여성 고용률이 높았으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남성 고용률에 비해 낮았음(통계청, 2022a).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30대 초중반 결혼,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주된 이유가 되고 있음(계봉오·김영미, 2014 ; 김지경, 2004 ; 박수미, 2002 ; 은기수, 2018)
-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의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10,880명이며, 그 비율은 9.9%였음(통계청, 2022b)¹⁾. 제주지역 여성의 경력단절은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인력 유실로 인해 큰 지역사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여성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의 현황과 일자리 욕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2. 경력단절여성의 현황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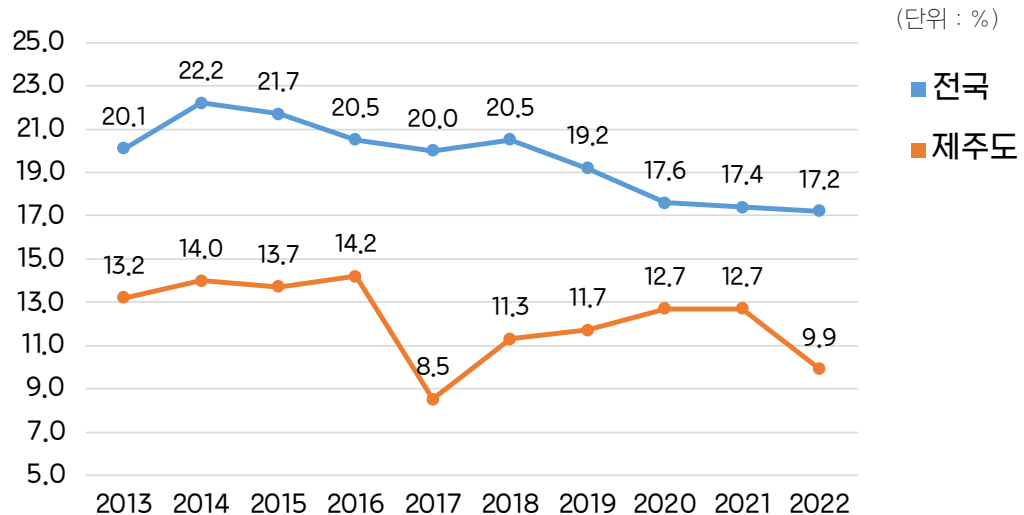
1) 경력단절여성 비율의 연도별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022년에 9.9%로 10년 전인 2013년 13.2%에 비하면 3.3%p 감소하였음. 특히 2017년 이후 2021년까지는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증가세에 있었다가 2022년에 감소세로 돌아서게 되었음. 즉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2021년에는 12.7%였으나 2022년에는 9.9%로 감소하였음(통계청, 2022b)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년 경력단절여성 비율(9.9%)은 전국(17.2%)에 비하여 7.3%p 더 낮았음(통계청, 2022b)
- 전국의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0년 전인 2013년에 20.1%로 2022년(17.2%)보다 2.9%p 더 감소했음. 즉 전국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10년 전에 비하여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다만 전국은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2021년에 17.4%로 2022년 17.2%보다 0.2%p 감소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비하여 전년도에 대한 감소폭이 적었음(통계청, 2022b)

1) 통계청(2022b).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https://gsis.kwdi.re.kr>) 참조.

2) 통계청(2022b).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https://gsis.kwdi.re.kr>) 참조. 「지역별고용조사」에서 경력단절여성은 “15~54세의 기혼여성 중 현재 비취업인 여성으로서,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의미함. 이는 2021년 전면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경력단절여성의 정의와는 다소 다름.

【 그림 1 】 경력단절여성 비율의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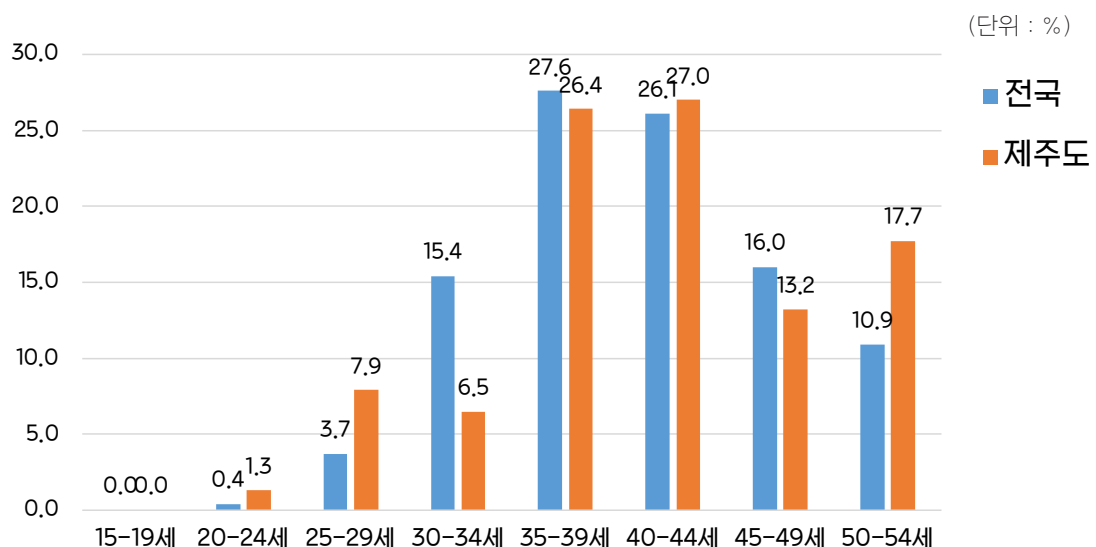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2022b).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https://gsis.kwdi.re.kr>).

2) 경력단절여성의 연령별 현황

- 경력단절여성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40-44세가 27.0%이고, 35-39세는 26.4%로 첫 번째,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그 뒤로는 50-54세가 17.7%, 45-49세가 13.2%, 25-29세가 7.9%, 30-34세가 6.5%, 20-24세가 1.3%, 15-19세가 0.0% 순으로 높았음
- 전국은 35-39세가 27.6%로 가장 높았으며, 40-44세가 26.1%로 두 번째로 높았음. 그 뒤로는 45-49세가 16.0%, 30-34세는 15.4%, 50-54세가 10.9%, 25-29세가 3.7%, 20-24세는 0.4%, 15-19세는 0.0% 순으로 높았음

【 그림 2 】 경력단절여성의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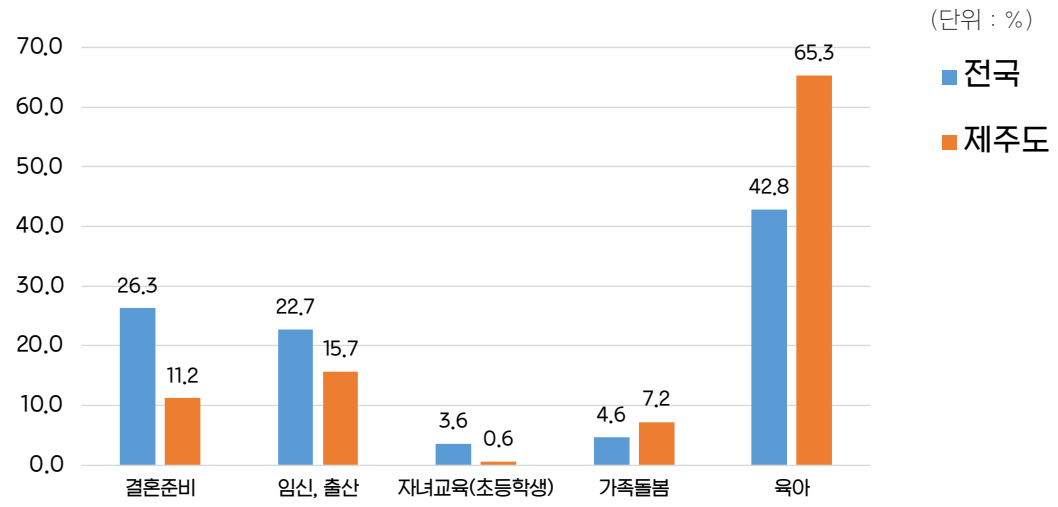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2022b).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https://gsis.kwdi.re.kr>).



3) 경력단절 사유의 현황

-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아가 65.3%로 가장 높았음. 이는 전국(42.8%)에 비해서 22.5%p 더 높았음. 그 뒤로는 임신, 출산이 15.7%, 결혼준비가 11.2%, 가족돌봄 7.2%, 초등학교 자녀교육이 0.6% 순으로 높았음
- 전국도 육아가 42.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는 결혼준비가 26.3%, 임신, 출산이 22.7%, 가족돌봄이 4.6%, 초등학교 자녀교육이 3.6% 순으로 높았음

【 그림 3 】 경력단절 사유의 현황



출처 : 통계청(2022b),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https://gsis.kwdi.re.kr>).

3.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욕구³⁾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설문조사에 응답해준 경력단절여성 505명의 연령은 25~29세가 15.8%, 30~39세가 22.2%, 40~49세가 34.5%, 50~54세는 27.5%였음
- 거주지로는 제주시가 75.6%, 서귀포시가 24.4%였음
- 결혼 여부로는 기혼이 73.9%, 미혼이 21.8%, 기타(이혼 및 사별, 별거 등)가 4.4%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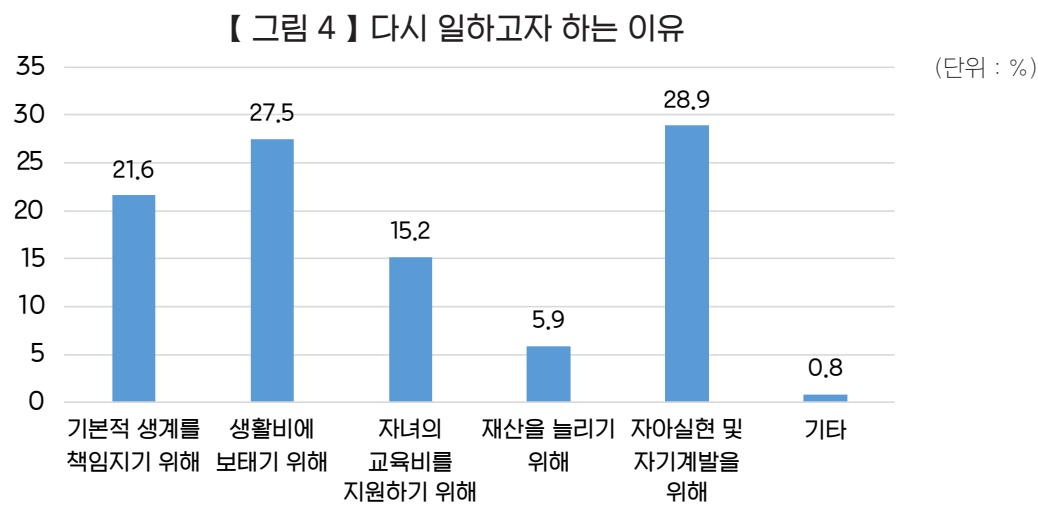
3) 3장은 선민정·고승한(2022),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욕구와 정책 지원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일부 참조하여 작성함.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 :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 505명임. 여기서 경력단절여성이란 “만 25~54세로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3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이며, 향후 일할 의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표집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인구수의 지역(제주시, 서귀포시) 및 연령(25~29세, 30~39세, 40~49세, 50~54세)을 고려한 비례할당
- 조사방법 : 자기기입식 또는 대면조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음. 조사는 전문 조사업체를 통하여 2022년 5월 23일부터 6월 10일 동안 수행되었음.

2)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이후 일자리 욕구

(1) 다시 일하고자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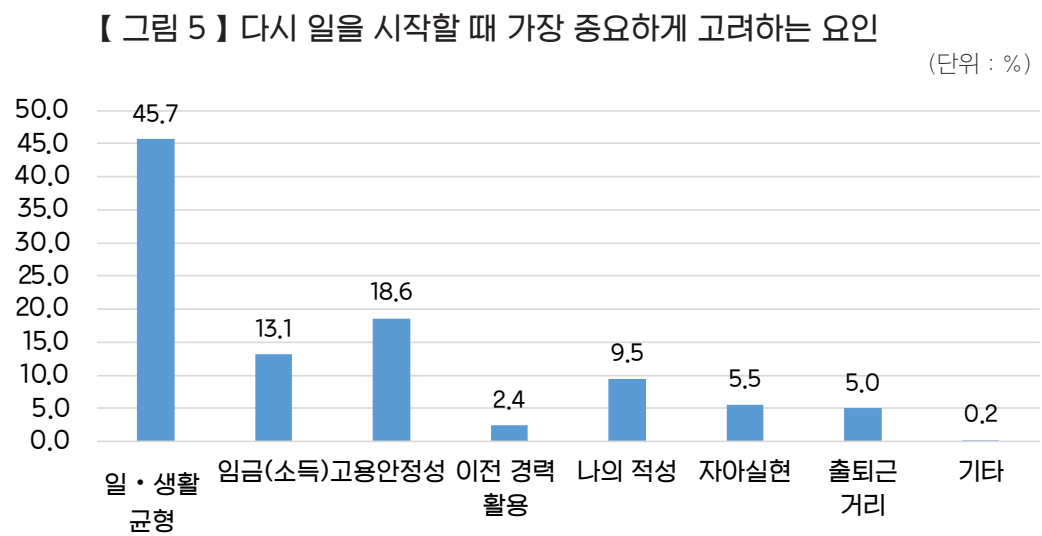
-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일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유사한 사안을 영역으로 묶어서 살펴보면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경제적인 이유’(기본적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가 64.3%로 매우 높았음. 각 항목별로는 “자아실현 및 자기계발을 위해”가 28.9%로 가장 높았음



자료 : 선민정 · 고승한(2022).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욕구와 정책 수요 설문조사」, 데이터 자료 참조.

(2) 다시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일을 시작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인은 ‘일 · 생활 균형’이 45.7%로 가장 높았고, ‘고용안정성’이 18.6%, 임금(소득)이 13.1% 순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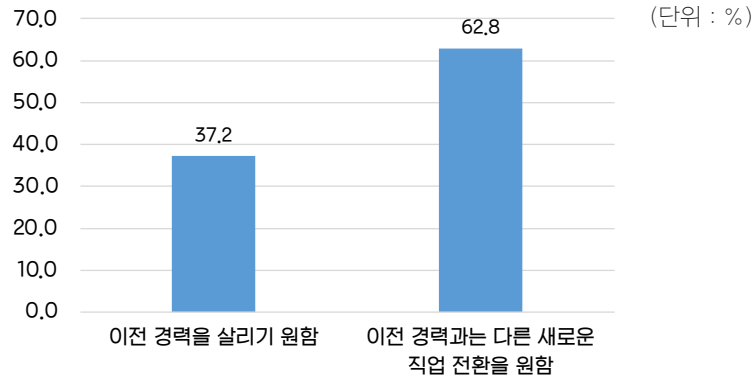
자료 : 선민정 · 고승한(2022).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욕구와 정책 수요 설문조사」, 데이터 자료 참조.



(3) 다시 일을 시작한다면 이전 경력을 살리길 원하는지 여부

-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일을 시작할 때 이전 경력과는 다른 새로운 직업 전환을 원하는 경우가 62.8%이고, 이전 경력을 살리기 원하는 경우가 37.2%였음

【그림 6】 다시 일을 시작한다면 이전 경력을 살리길 원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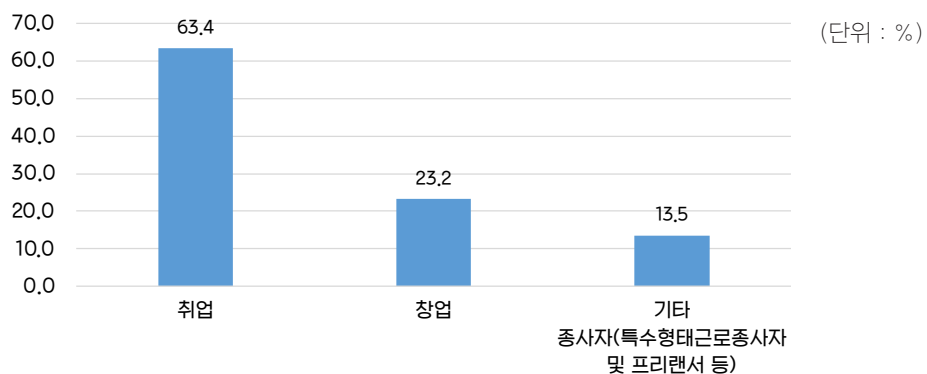


자료 : 선민정 · 고승한(2022),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욕구와 정책 수요 설문조사」, 데이터 자료 참조.

(4) 향후 원하는 일자리의 종류

- 경력단절여성은 향후 원하는 일자리가 '취업'인 경우는 63.4%로 가장 높았으며, 창업은 23.2%, 기타 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는 13.5% 순으로 높았음

【그림 7】 향후 원하는 일자리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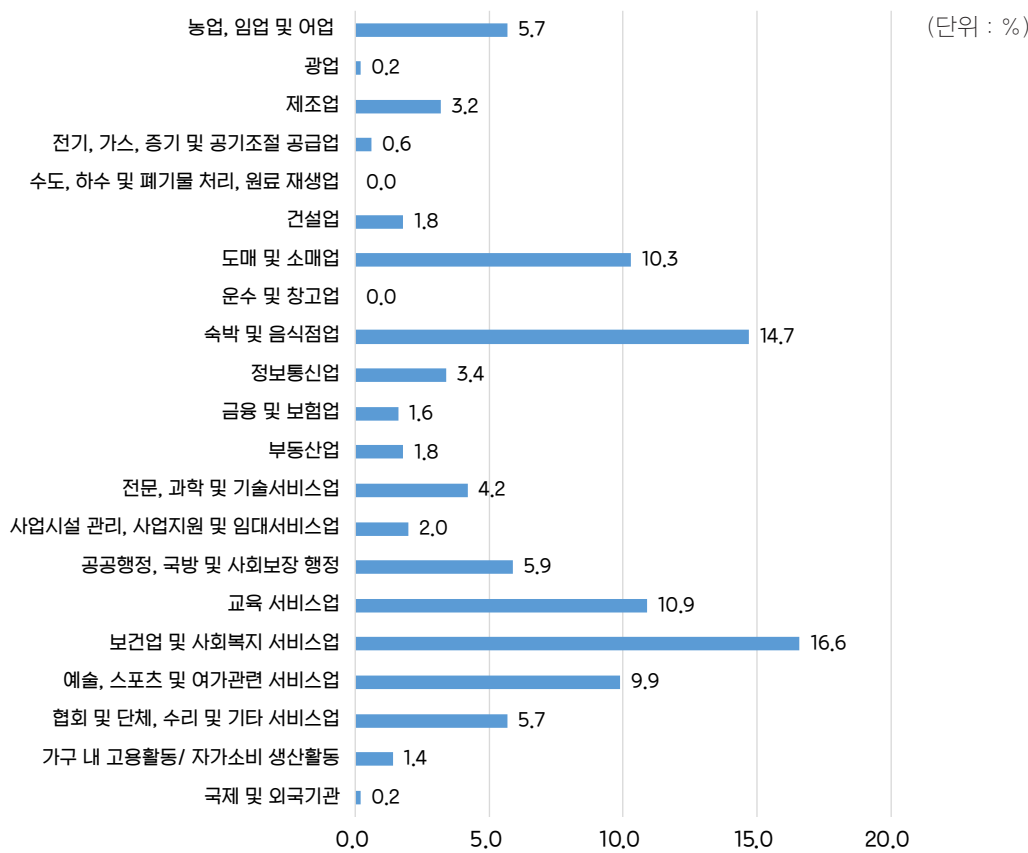


자료 : 선민정 · 고승한(2022),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욕구와 정책 수요 설문조사」, 데이터 자료 참조.

(5) 향후 원하는 일자리의 업종

- 경력단절여성은 향후 원하는 일자리의 업종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6.6%로 가장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14.7%, '교육 서비스업'이 10.9%, '도매 및 소매업'이 1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9.9% 순으로 높았음

【 그림 8 】 향후 원하는 일자리의 업종



자료 : 선민정 · 고승한(2022).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욕구와 정책 수요 설문조사」. 데이터 자료 참조.

(6) 다시 일할 시 원하는 임금(소득)

- 경력단절여성은 다시 일할 시 원하는 임금(소득)이 평균 256.6만원으로 나타났음

4. 시사점 및 지원방안

1) 1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일 · 생활균형 지원

-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 및 ‘임신, 출산’이 매우 높았으며, 다시 일자리를 가질 때 고려 요인으로 ‘일 · 생활 균형’이 가장 높았음. 즉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일을 하더라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 · 생활 균형 지원이 매우 필요할 것임
- 따라서 1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등 일 · 생활균형 제도 도입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교육, 가이드라인 제작 · 배포를 하고, 더 나아가 컨설팅과 필요한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음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교육 인프라 지원

- 경력단절여성은 다시 일을 시작할 때 이전 경력과는 다른 새로운 직업 전환을 원하는 경우가 62.8%로 나타나 새로운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 인프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교육 인프라 지원이 일부 이뤄져서 긍정적으로 보이거나 이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임

3) 여성 창업 및 프리랜서 등 교육 지원

- 경력단절여성은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과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일자리도 약 40% 정도가 원하고 있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및 프리랜서 등을 위한 교육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창업 교육 이후 전문 컨설팅, 창업자금, 공간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과 같은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창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 계봉오·김영미(2014). “한국여성의 결혼, 출산 및 경제활동 참가 형태에 대한 연구 - 다중상태 생명표(Multi-state life table) 적용”. 「사회연구」 25(1) : 79-113.
- 김지경(2004). “젊은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연속성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3) : 91-104.
- 박수미(2002).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36(2) : 145-174.
- 선민정·고승한(2022).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욕구와 정책 지원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은기수(2018).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경력단절”. 「한국인구학」 41(2) : 117-150.
- 통계청(2022a).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2022b). 「지역별고용조사」(부가조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홈페이지(<https://gsis.kwdi.re.kr>).

